너와 나, 모두 도움 되는 대화를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보국사 주지

지난해부터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는 큰 홍역을 앓았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고, 이에 군경은 국회 장악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가로막았다. 야당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해 비상국회를 열고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에도 계엄과 탄핵 관련 여론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반쪽이 났다. 그렇게 123일이 지났고, 헌법재판관들의 선고로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다. 이제 그는 일반인으로 돌아가 그와 부하들이 일으킨 행위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됐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구촌 가족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주변에서 만나는 외국인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흥미롭게 지켜보았던 것 같다. 이들은 "교과서로는 볼 수 없는 민주주의와 정치, 그리고 책임자와 시민들의 행동을 살펴 볼 기회였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와 종교 문제를 대화 주제로 올리는 것은 '싸움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와 종교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빼고 사회 전반의 문제 대해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치와 종교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해당 주제를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나와는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고, 틀렸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애시당초 대화와 토론의 출발점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의 공감과 이해가 어렵다면, 우선 경청이라도 해야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종교 논쟁 민감한 韓사회
감정으로만 상대와 대화하기 때문
바른 논쟁은 사회 발전을 이끈다

우리는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논리를 말하기 보다는 감정을 섞어 말하게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감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873년 스리랑카 '파아나두라'라는 마을에서 1만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불교의 스님과 기독교의 목사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를 '파아나두라 대논쟁'이라고 한다. 당시 스리랑카의 시대적 배경은 네덜란드 식민지가 끝나고 영국의 지배(1796~1948)에 들어간 시기다. 지배자들은 스리랑카의 국교인 불교의 활동을 제한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강요했다. 에에 모호티왓테 구나난다 스님이 토론을 제안했고, 이를 수록한 기독교계에서는 데이비드 데 실바 목사가 논쟁에 참여했다.

이들은 영혼의 문제부터 육체와 정신, 교주의 지혜, 죽음, 경전의 신뢰성 등에 대해 논의했고, 결국에는 불교의 승리로 끝났다. 두 종교인의 논쟁은 날카로운 이성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논쟁 후에도 어떠한 폭동과 갈등도 없었다. 이 논쟁은 현재까지 스리랑카가 불교국가로 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불교의 '화쟁'도 갈등을 풀어가는 대화법이다. 불교의 대화법은 목표가 명확하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도움되는 대화이다.

산불과 장애인 재난 환경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장애인에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달이지만 장애인들이 처한 취약한 사회적 환경에는 관심이 높지 않다.

얼마 전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어 빈곤을 가중시킬 수 있다. 재난의 빈곤화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에게 더 집중된 큰 피해로 나타난다. 반지하 주택, 저지대나 산림 주변 주택 등은 재난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쉬우며, 방재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폭우, 태풍, 산사태, 산불 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은 재난 관련 정보와 지원 서비스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대피나 지원 요청이 늦어지고 피해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난지원체계가 장애인과 노인 등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된다. 이는 장애인이 공공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22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 등은 주로 노약자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으며 겉으로 파악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빈곤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입장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의 빈곤화의 원인과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피부에 금방 와닿는다. 장애인들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재난 이후 생계의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남 산불, 취약계층 피해 집중
사회적 약자, 재난에 더 취약해
산불 피해 장애인에게도 관심을

장애인이 재난상황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으로는 장애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주택이나 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재난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재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재난 발생 시 뇌병변장애·청각장애·시각장애·지적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정보 접근성 문제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재난경보시스템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나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재난지원책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사례도 있으며,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 보호소 등은 장애인의 재난 이후 생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재난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유형에 맞춘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수어 방송, 음성 안내, 문자메시지 등) 및 제공을 의무화하고, 재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장애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불교계에서는 영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고 소실된 사찰과 불교문화유산 복구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산불로 재난을 당한 장애인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재난 피해를 줄이는 게 아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회적 포용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社 說

조계종 성역화 불사에 거는 기대

조계종은 4월 7일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9개 업체 중 심사를 통과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었다. '화엄의 세계를 체험하는 여정의 공간'을 주제로 한 설계는 10·27법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불교 전통문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복합 문화 추념공간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숙원 사업이던 10·27법난 명예회복과 피해자 예우를 위한 기념관 건립에 한 발짝 내딛게 됐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렸다. 바로 그동안 조계사 일주문을 막고 있던 동양금박 건물이 5월 말에 철거된다는 것이다. 동양금박 건물은 토지면적은 크지 않지만 일주문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어 사찰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2014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조계사는 사부대중의 모연으로 2021년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와 점포 인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 3년간 철거가 지연됐다.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조계사 성역화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이뤄지는 성역화 불사 모두 조계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한 곳은 국가권력이 자행한 희대의 법난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다른 한 곳은 근현대기 한국불교의 법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도량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서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불사와 조계사 성역화 불사가 원만 성취되길 기원한다.

문화의 힘으로 전법·포교하라

2025 서울국제박람회가 많은 화제를 낳은 가운데 성료했다. 4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린 박람회는 사전등록 4만명을 비롯해 총 20만명이 관람했다. 힙한 트렌드를 반영한 불교 굿즈에 MZ세대들은 열광했고, "무소유하러 왔다가 풀소유하고 간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봉은사에서 펼쳐진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전통 불교문화 체험' 야단법석도 관람객의 오감을 사로잡았다.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우리 음식을 체험할 수 있었던 야외 체험부스는 연일 관람객과 체험객으로 북적였다.

4월 8일 강화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는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다. 지역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는 게이트볼 대회는 올해 20회를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 전등사는 2006년부터 게이트볼 대회를 열어, 어르신 복지와 지역 포교 증진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스포츠로 자리 잡자, 조계종은 승려 연수교육 과정으로 파크골프 수업을 인증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는 2023년부터 직지사배 자선파크골프대회를 열고 있다.

지금은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세대와 성별, 국경을 뛰어넘는 것은 문화밖에 없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문화'를 기반해 전법해왔다. 경전의 변상도, 불화는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문화는 한국불교 전법의 중요한 아이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4월 1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4월 1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4월 1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